

머저르프론트

Vol. XIV, No. 2

2012년 봄

**첼모
특별판:
20세기
헝가리의
머리보호구**



CZINK COLLECTION - PHOTO COLOURIZED BY ORINCSAY

www.NewFront.ca

편집자의 말

이번 머저르 프론트에선 터마시 버초니 소령님과 함께 작업하게 되어 영광이다. 회지에 실린 자료는 군사사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특히 오래된 전투모들을 모으고 취급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할 것이다.

모든 수집가들은 물품의 가치와 진품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선 물건 하나하나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세심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20세기 중반 헝가리 군용 철모들은 특히 혼란스런 문제인데, 오래된 비축품들은 새로운 물품들과 섞였고, 자원부족으로 인해 구형 독일제 철모들이 전후 헝가리군 물자에 편입된 데다 시간의 흐름은 다양한 부품들의 혼합품과 허구의 물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과거 1970년대에, 아메리카 불용 군수품 통신 판매 회사가 상품 목록에 "진품 헝가리군 철모들"을 올려놓았던 것이 기억난다. 냉전기 동안 북아메리카 회사가 헝가리 군수품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다. 철모들을 2차 세계대전의 물건이라고 광고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은 "독일"과 간접적이라도 관련된 것들이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던 초기에 이 물건들을 대량으로 건져 올렸다. 그 이후로, 특히 오늘날의 온라인 경매들에선 이 특이하고 재 도색된 헝가리군 철모들은 온갖 종류의 내피 (완전히 새로운 독일제 내피들도 포함되어 있다)를 갖춘 채 꽤 정기적으로 모습을 보인다. 입찰했거나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철모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머저르 프론트 주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IHMHPS 동료 협회원 페테르 오린치이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새로운 IHMHPS 스칸디나비아 부회장이 된 그를 다시금 소개하고 싶다. 비록 우리 정규 회원은 오십 명 언저리를 맴돌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대단히 많은 연구들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무료 정보 (이전 머저르 프론트들과 자료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매달 수백의 새로운 방문자들이 우리 작업물의 혜택을 보기 위해 오지만,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임무는 지식의 공유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나 연구와 조사를 유지할 뿐 아니라, IHMHPS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열일 하는 대표자들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분명 우리 발행물에서 페테르 오린치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세심한 컬러화, 복원 사진들은 모두 큰 보배이다. 많은 회원들처럼, 그 역시 훌륭한 자원 봉사자로 언제나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있다. 그는 스웨덴 베르나모의 헝가리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이가 참에 따라, 양차 세계대전을 겪은 조부모님들의 경험들, 1956년 봉기에 관한 아버지의 기억에 빠져들면서 역사에 대한 그의 관심은 영원해졌다.

그는 가족 전통에 따라 외스테르순드의 엠틀란스 켈세가르 연대에서 복무를 마쳤으며, 나토 평화유지군으로 발칸에 두 번이나 파견되었다. 사진에 관한 페테르의 흥미 또한 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유년기의 그는 일상과 주변의 사람들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관심은 수년이 지나면서 정규직장으로 발전하였다. 평화유지군에서는 여단 사진사로, 이후에는 프리랜스 뉴스 사진기자로, 사진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를 전 세계로 데려가 주었다.

여행을 마치고 예테보리에 정착한 페테르는 결혼을 하면서 잠시 자신의 특기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공무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때였다. 수년간의 디지털 사진 작업 경험을 통해 그가 얻은 지식은 역사적 모습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에 더해 페테르는 수많은 독특한 사진 디지털화, 컬러화 기술들을 발전시켰으며 끊임없이 오래된 사진들을 복원하였다. 페테르는 또한 헝가리 군사 수집가이기도 하다.

그의 블로그들을 계속 지켜봐 주길 바란다 (www.orincsay.com) 과 (www.tuzkereszt.com) 그리고 편하게 그와 연락하길 바란다. 이 박식하고 재능있는 본 IHMHPS 회원은 항상 자신의 열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

P.Cz.

표지

대단히 훌륭한 페테르 오린치이의 또 다른 컬러화 작업물이다 - 훈장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 기동 부대 소속 신원미상의 대령은 M1935 알루미늄 장교용 의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MAGYAR FRONT VOLUME XIV, ISSUE 2 SPRING 2012

Published quarterly by
Peter Czink VRNT, Editor-Designer

The NEW FRONT:
(International Hungarian Military
History Preservation Society)

Peter Czink VRNT
President

Lorraine Weideman
Vice-President, Webmaster

Péter v. Laborc
Vice-President, Hungary

John Keir
Vice-President, United Kingdom

George Hennessy
Vice-President, Australia

Josef Lang VRNT RVM
Vice-President, Germany

Manfred Winter
Vice-President, Austria

Sergey Slakaev
Vice-President, Russian Federation

Péter Orincsay
Vice-President, Scandinavia

Dr. Gergely Pál Sallay
Historical Consultant, Correspondent

PO Box 74527 Kitsilano PO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K 4P4 Canada 604 733-9948

czink@shaw.ca
www.NewFront.ca

©2012 All rights reserved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Hungarian Military History
Preservation Society is \$40.00 annually,
and includes the *Magyar Front*.

The original *Magyar Front* was the
weekly newspaper of the Frontline
Fighter's Association, and was
published from the early 1930s until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20세기 헝가리의 머리보호구

티마시 버츠너, 페렌츠 창크 씨



철모는 1차 세계대전의 혁신이라 여겨지긴 하지만, 1910년대 동안 러일 전쟁, 보어 전쟁, 발칸 전쟁 등의 교훈들에서 비롯된 새로운 전투복 계획들의 일부로서 유럽의 군대들에서 여러 실험적 전투모들을 시험한 바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은 매우 많은 머리부상자 (참호 난간 위로 가장 먼저 보이는 신체 부위였다)를 유발했으며 전장 위 어디에서든지 파편을 날려 보내는 포병 사격 또한 매우 위험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은 다수의 머리 부상을 유발시킨 이존초 전선의 암석 지형에서 직접적으로 머리보호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대화된 용기병 전투모 (벧을 없애고 두꺼운 전방 장갑을 설치했다)를 이용한 실험 이후, 개조형 드라군전투모들은 실용적이지 못한 데다 불편하고 대규모 보급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철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초 시제품은 우측의 사진이다.


1916년 당시 독일군이 철모를 도입하고 있었기에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동맹에게 철모를 주문하거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공장들에서 독일식 철모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최초로 수천여 개의 독일제 M16 철모들이 수입되어 부대들에게 보급되었다. 이후 국산 철모 (독일식 모형에 기반을 둠)는 메탈바렌파브리크 AG 베른도르프의 아르투어 크루프에 의해 개발됐다.

이어서 독일제 철모의 면허를 구매하였고 자잘한 개조들을 거친 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회사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헝가리에선 두 곳의 철모 생산 업체가 존재했는데, 체펠(부더페슈트 내 지역) 먼프레드 베이시와 머테오츠 (오늘날의 슬로바키아 마테요비체)의 슈출츠였다.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

5 페이지로
계속됩니다...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

흔히 “베른도르퍼”라고 알려진 최초의 오스트리아-헝가리제 철모들은 독일 것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제조 방법으로 인해, 챙은 다른 형태를 하고 있으며 통풍은 측면보다는 상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철모의 명칭은 14만여 개가 제조된 공장의 장소에서 따왔다.

군사사 박물관의 전시품은 파편이나 총탄에 의해 손상을 입었다.

탄이 뚫고 들어간 입구는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고,

꽤 큰 크기의 출구가 왼쪽에 나있다.

...3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독일제 철모들은 독일제 M91 턱끈을 포함한 본래 부속품들과 원색을 지닌 채 남았다. 독일제 턱끈을 초기에 분실했지만 대체품이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헝가리는 캔버스 턱끈을 지급하였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 철모 (공식적으로 슈탈헬름 나흐 외스테라이히셴 무스터라 알려짐¹⁾)는 독일제 철모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지만 일부 변화들이 있었다 - 철모의 챙은 기존과 다른 형태였고 통풍구는 철모의 상부에 나있었다. 이 철모는 "베른도르퍼"라고도 알려졌다. - 제조 공장은 1917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14만여 개라는 제한된 수량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그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철모 생산은 중지되었으며 베른도르프 공장은 독일제 철모로 생산 공정을 바꾸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 독일식 철모 (공식적으로 슈탈헬름 나흐 도이첸 무스터라 알려짐²⁾)는 소소한 개조들을 거친 후에 생산되었다 - 독일제 M16과 M17 철모들의 턱 끈 걸이들이 실용적이지 못했기에 턱 끈 걸이가 기존과 다르게 부착됐다. 독일식 턱 끈 걸이는 철모 몸체에 부착되어있던 반면 베른도르프 공장은 턱 끈 걸이가 내피 테에 부착되도록 수정하면서 리벳과 노동력을 절약하였다. 모든 오스트리아-헝가리제 철모들은 펠트브라운색으로 도색되었고 독일제 수입 철모들은 본래색이 펠트그라우색으로 남았다. 펠트브라운색은 육군을 위한 새로운 전투복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1917-1918년 몇몇 시도들이 행해져 다양한 시제 전투복들이 평가받았지만, 종전은 해당 계획들에게 종말을 고했다.

위: 좌측의 독일식 내피
아래: 오스트리아-헝가리식 베른도르퍼 내피



종전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철모들은 많은 중부 유럽 국가들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 (후의 유고슬라비아)은 주로 프랑스제 아드리안 철모와 이탈리아식 철모들을 사용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단순히 오스트리아 풍을 지우고자 철모의 형태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군대들 (헝가리의 경우엔 붉은 군대와 민족주의 군대 전부)은 변화 없이 그대로 철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베른도르퍼 철모가 부족해졌을 뿐만 아니라 평시 군대의 획일적인 제식 철모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존 베른도르퍼 철모들은 퇴출되고 독일식 철모가 제식이 되었다. 헝가리에서 1차 세계대전 철모들은 간혹 내피를 갈아 끼우고 새로운 펠트그린색으로 재 도색됐다. 이는 먼프레드 베이시 사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1차 세계대전식 철모들을 생산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기록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30년대 중반, 1차 세계대전식 철모는 너무 크고 무거워 현대전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식이 되었다.

13 페이지로 계속됩니다...

1) Stahlhelm nach österreichischem Muster, 오스트리아식 철모라는 의미이다. (역주)
2) Stahlhelm nach deutschem Muster, 독일식 철모라는 의미이다. (역주)

거대한 "통풍구들"은
두 가지 목적을 지녔다.
철모 속으로 공기가 통하게 하는 것과
정면 추가 장갑판을 고정시키는
것이였다.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오스트리아-헝가리제 M1917과
독일제 간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들은
필드 브라운 도색과 리넨 턱 끈이였다.

또한, 턱 끈을 고정하는 리벳들이
독일제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철모 내부 강철 띠에 부착된
세 장의 튼튼한 가죽 패드들은
말털이나 양털로 채워진
리넨 쿠션으로 받쳐졌다.

크기를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각 패드의 도색된 금속 구멍들을 통해
끈 하나가 지나가고 있다.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이 견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식은 숫자 "37"이다.
잉크 자국들과 다른 표식들 또한
이들 철모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전간기 헝가리군 제복 안내서의 그림들 (본래 흑백 그림이다)

M1917 철모가 부속품들과 함께 그려졌다: 주로 관측소 인원들이 사용한 전방 장갑판과 리넨 철모피이다 (눈에 덜 띄고자 철모 윤곽을 뭉뚱그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형식의 철모는 네 가지 크기로 생산되었다 - 62, 64, 66 그리고 68.

때때로 이러한 숫자들이 철모 내부 왼쪽이나 목 보호대 부분에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리넨 턱 끈 또한 두 가지 형태가 묘사되고 있다. 부속품들이 함께 그려진 M1917 철모 좌측은 프리션 버클, 우측은 간단하고 일반적인 버클로, 가죽이 끝 부분을 보강했다.

M1935 철모.
이 견본은 내부 측면 보호대에
작은 헝가리 문장과
“GY66”이란 부호가 적혀있다.



M1935 철모들에는 각 측면 통풍구의 부상¹과
내피 테를 고정하기 위한 잘 만들어진 반구형
리벳들이 있다.



CZINK COLLECTION / WEIDEMAN PHOTO

이 M1935 철모의 상태는 매우 좋다.
가죽 내피 (패드들로 덧대어진)와 낫쇠 버클을
지닌 튼튼한 가죽 턱 끈에 주목하라.
내부 패드들은 속을 채우거나 제거하면서
조정할 수 있었으며, 고정 끈은 더 착용자의
신체에 맞추도록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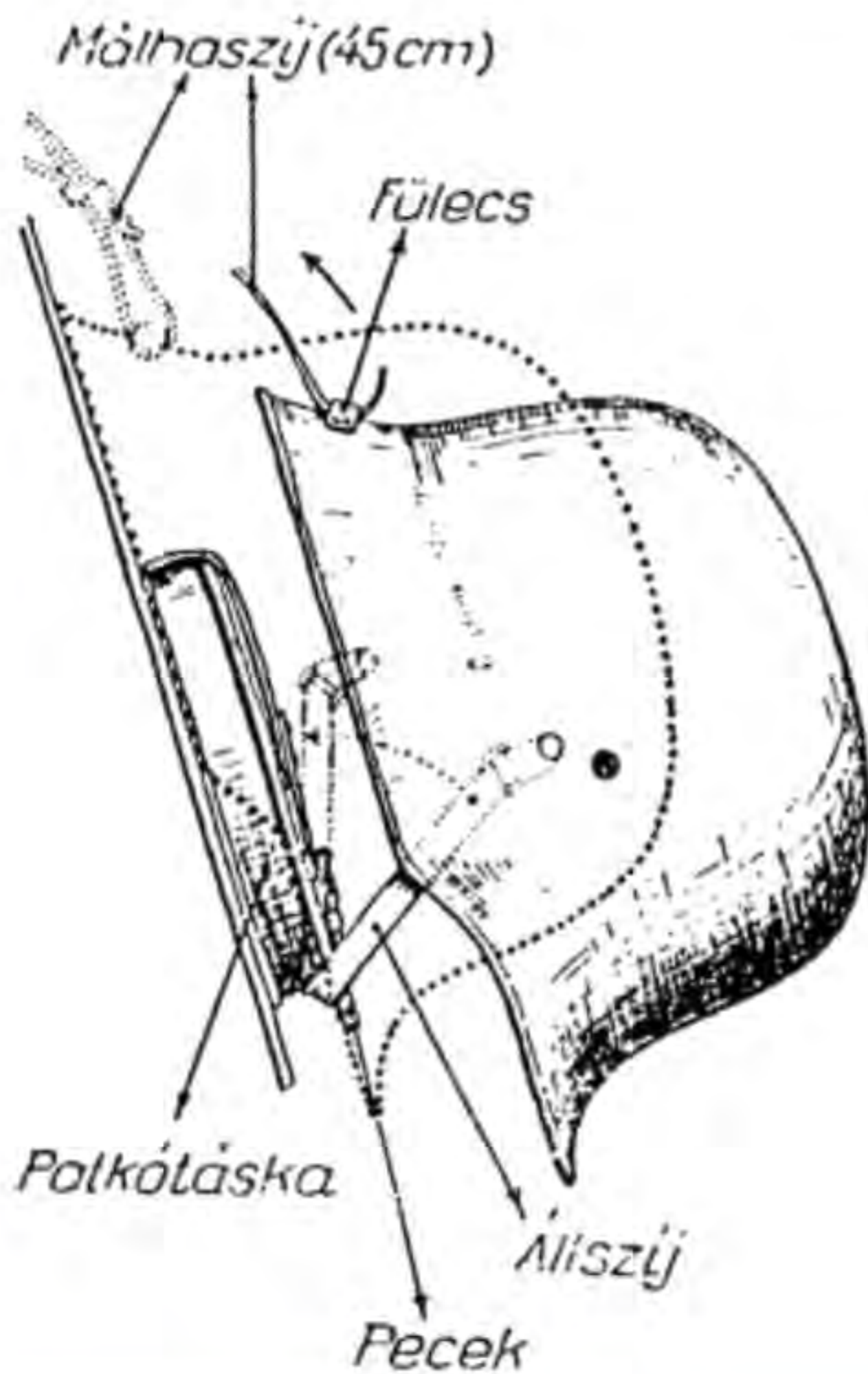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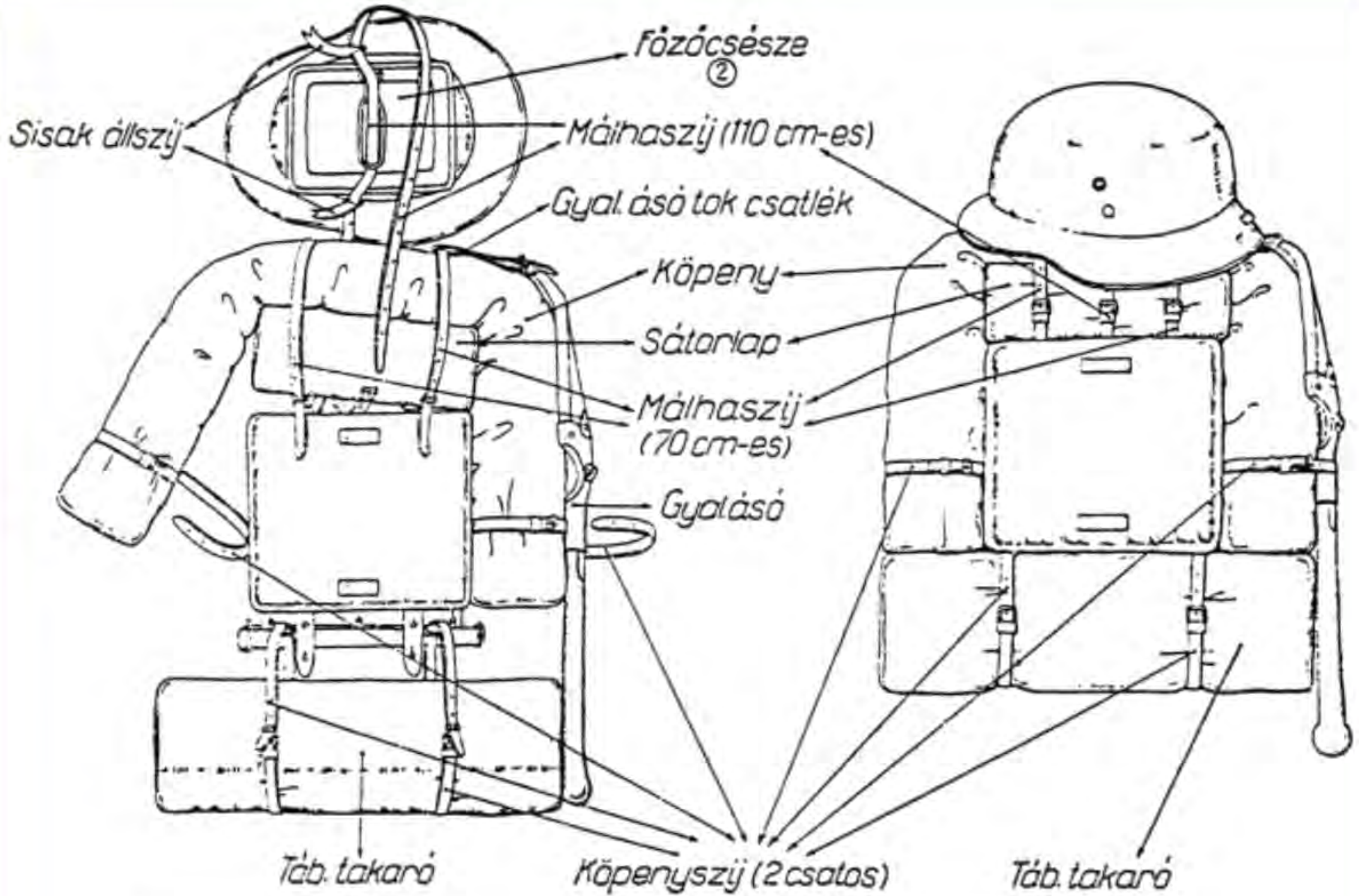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좌측은, 흔하게 보이는 고리로,
목 보호대 후방에
두 개의 리벳을 통해 고정되었다.



1) 통풍구를 감싸는 원형 틀.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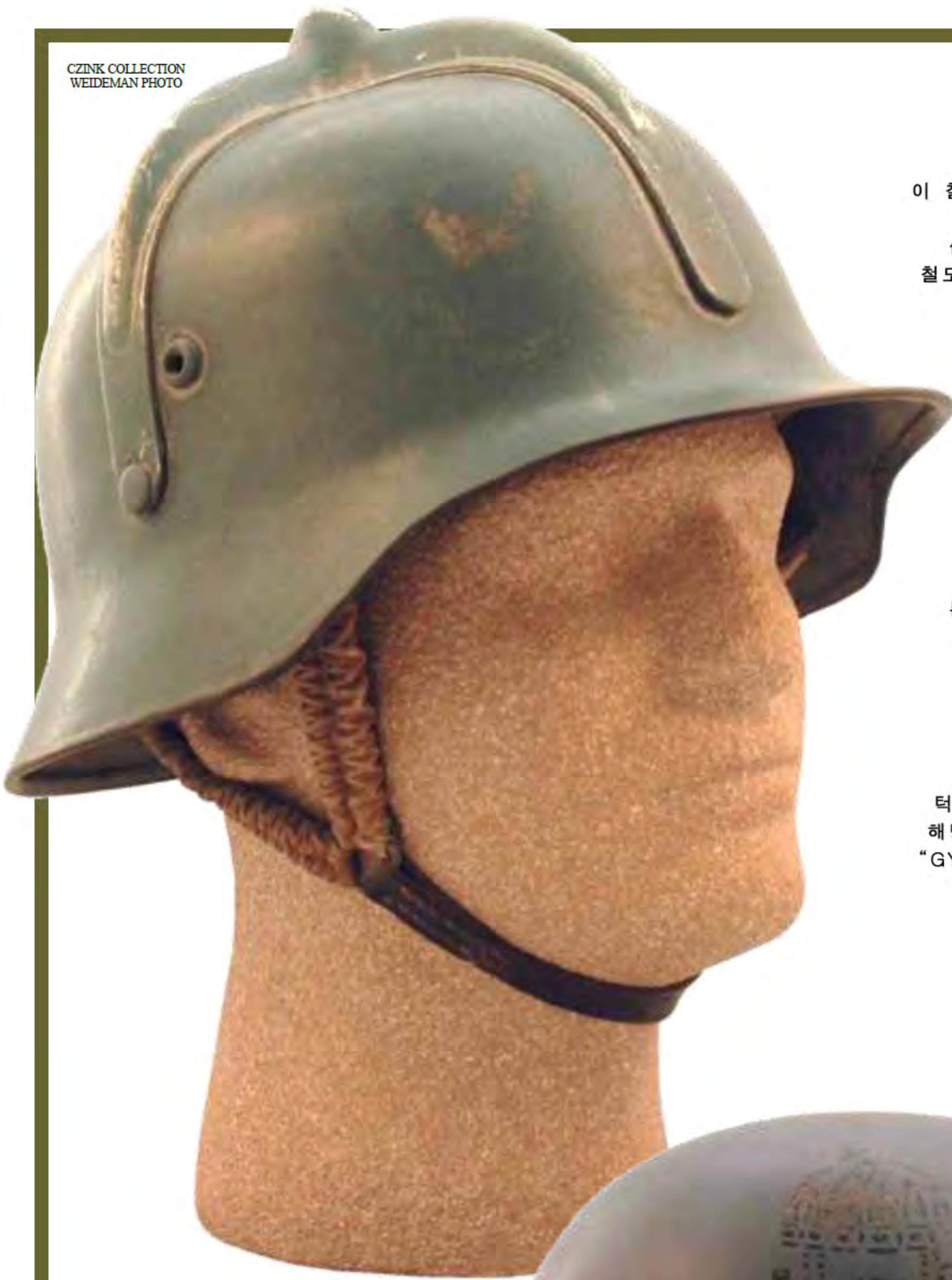
헝가리군 철모 고리

2차 세계대전 시기 헝가리군 철모의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목 보호대 후방 바깥쪽의 고리이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은 어딘가에 매달거나 휴대하기 위한 것이라 알려졌지만 고리를 사용하는 사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 보여 지고 있는 것과 같은 동시기 헝가리군 장비 규정들은 다른 장구들에 철모를 부착하기 위하여 턱 끈의 D-링을 걸도록 보급되는 일반적인 가죽 끈들 중 하나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설명들 (모든 상황을 가정 하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좌측의 그림은 고리의 본래 사용 목적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은 M1935, M1927 그리고 M1906 기병 안장에 철모를 거는 것을 설명하는 규정들에서 나온 것이다. 보편적인 가죽 끈은 철모 고리에 끼워져 고정된다. 그 다음엔 철모 턱 끈을 가죽 편자 통에 돌려 고정시키며 안장에도 고정시킨다.



좌측: M1935 B식
민방공용 철모.
이 철모들은 기존 A식 철모들보다
강화된 형태이다.
십자형 알루미늄 강화재는
철모에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다.

튼튼한 턱 끈 조립품을 착용한
방식은 좌측에서 볼 수 있다.
낫쇠 버클을 지닌 제식 가죽
턱 끈이 턱 아래를
지나가긴 하지만
천으로 덮인 강철 스프링을
포함한 V형태 끈이
턱 끈을 철모 내피와 연결시킨다.
해당 견본의 내부 측면 보호대에는
“GY68”이라는 부호가 찍혀져 있다.
내피 또한 곳곳에 “34”라는
숫자가 잉크로 찍혀있다.

우측: 정면에
M.[agyar] KIR.[ályi] POSTA
(왕립 헝가리 우체국)와 헝가리 성관,
우편 나팔이 찍혀져 있는
M1935 A식 철모.
이 철모들은 공습 동안
취약해지는 우체국 직원들을 위해
지급되었다.



우측: 또 다른 M1935 B식.
국가 소방대용 철모.
이 철모들은 보통 일반적인 민방공용
청색으로 도색되었지만 일부는 흑색으로
도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측의 견본과
같이 매우 짙은 갈색을 띄기도 했다

아래:
B식 철모 특유의
튼튼한 내피.
가죽 내피 뒤의
매우 두꺼운 모직-펠트
충전재가 추가적인
보호력을 제공해준다.
내부 측면 보호대에는
“GY66”이,
내부 후방에는
헝가리 문장이 찍혀있다.



화관 안에 헝가리 문장이 있고
그 위로 불꽃의 형상이 있는
양식화된 모표로 이루어진
별개의 일체형 금속 휘장은
소방용 철모들 전방에 고정되었다.

이 철모들은 전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휘장은
화관 중앙에
방패만 있는 것으로
교체되었다.

장교의 M1935 알루미늄 의전용 철모



CZINK COLLECTION

위의 사진에 나오는 대령 (표지 사진이기도 하다)은 M1935 알루미늄 의전용 철모를 착용하고 있다. 초기 M1933은 1차 세계대전 철모에 더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 신형 철모는 M1935 철모의 것과 형태가 유사한 구식 돌출부들을 장식으로 지니고 있다.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의전용 철모의 멋들어진 안감은 질 좋은 가죽 띠가 달린 펠트 덮개와 그것을 고정하는 하얀 실크 나비매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한 가죽 턱 끈은 손쉽게 풀고 잠글 수 있다.

이 견본의 유일한 표식은 띠 옆에 손으로 쓰여진 "57"이라는 숫자이다.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S

“1947년식” 철모 - 실제론 독일제 M35/40 철모에 헝가리제 신형 내피를 부착시킨 것이다.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S

“1949년식” 철모 - M1935를 투박하게 재 도색하고 내피를 갈아 끼운 것으로, 통풍구 부심이 제거되었다.

...5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헝가리는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독일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독일식 철모 (슈탈헬름 1935)를 도입했다. 독일에게 면허를 구입하여 소소한 개량들을 거친 이후에, 헝가리 공장들 (주로 MÁVAG와 죄리 버곤 에시 게프자르)은 1936년 1월 철모의 생산을 개시했다. 구식 철모들은 M1915 철모로 재 지정되어, 직사각형 고리 부착물 (M1935 철모의 것과 같은 것) 추가가 주문되었다. M1924 장교용 의전모 (“로엔린Lohengrin”)를 대신해서 철모 형태의 알루미늄 의전모가 1933년 장교들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1935년엔 M1935 철모와 유사한 형태의 의전모가 도입되었다.

헝가리 철모 역사의 또 다른 특이한 측면은 (민간 방공대들에겐 구식 철모들을 보급하는 통상적인 국제 관습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민간 방공대는 1938년에 청색으로 도색된 신형 M1935 철모들을 보급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1차 세계대전식 철모들은 1941-1942년까지도 동부전선의 헝가리군 병사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민방위 소방관들은 청색의 강화된 M1935 철모들을 받았다. 이것들은 “B식 철모”라고 알려진 것이다 (반면 표준 민방위 철모는 “A식 철모”라고 이름 붙였다).

흥미롭게도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색다른 국가들이 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철모들을 사용했었다. 폴란드와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으로, 폴란드의 경우엔 군과 경찰 모두 오스트리아-헝가리제 철모들을 사용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이후, 새로운 헝가리의 민주 군대는 찾을 수 있는 어떤 물자라도 이용해야 했다. 그러한 군복의

부족으로, 많은 병사들이 사복 차림으로 군인 신분임을 나타내는 간단한 완장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철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가용 가능한 전부가 운용되었다. 남아있는 M1935 철모들과 함께 독일제 M35, M35/40 그리고 M42 철모들이 재 도색된 후 헝가리제 내피들을 부착하여 보급됐다. M1933과 M1935 장교용 알루미늄 철모들 또한 행사를 위한 의전용 모자로 남았다.

전후 최초의 제식 내피는 짙은 갈색의 저질 인공가죽으로 만들어진 패드 4개로 구성되었다. M1935 철모 외피 또한 전후에 저품질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테두리 안쪽 가장자리는 조잡했으며 고리들은 잘못 배치되었고 승인 도장인 왕가 문장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간혹 가다 통풍구의 부심들은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간단히 철모 양 옆에 구멍을 뚫고 말았다 (상단의 사진을 보라).

오늘날, 이런 철모들은 보통 “틸지 철모” (1946-1948년 동안 재임한 헝가리 대통령은 줄탄 틸지였다)로 불렸으나 “라코시 철모” (줄탄 틸지의 후임자, 마차시 라코시)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해당 철모들은 1949-1950년 동안 생산되어, 1952-1953년에 새로운 소련식 철모가 채택되기 전까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15 페이지로 계속됩니다...



M1935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LABORC COLLECTION / PHOTO



“1947-type”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



LABORC COLLECTION / PHOTO



“1949-type”

MILITARY HISTORY MUSEUM
COLLECTION
FERENC BALINT PHOTO



LABORC COLLECTION / PHOTO

좌측: 철모 내피들 비교 -
전시 M1935와 “1947년식”, “1949년식”
위: 전후에 사용된 “1947년식” 철모들
(재보급된 M1935들)의 흥미로운 견본들 세 개.
상: 부더페슈트 제 19지구의 숫자를 따와 전방에 “XIX”를
찍어놓은 소방관용 철모 (1950년대 이후)
중: 붉은 별과 함께 쇼프로니 텍스틸자르
(쇼프른 직물 공장)의 상표 “SOTEX”가 찍혀있다.
하: 신원미상의 소방대 철모.

...13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1950년, 헝가리 인민군은 새로운 형식의 철모를 도입했다 - 이는 헝가리군 군대의 제복, 장비, 그리고 정신에 대한 "소비에트화"의 일환으로, 사실상 소련제 Ssh41와 다르지 않았다. 신형 철모의 생산은 부더포키 조만차루자르에서 이루어졌고, 첫 대규모 보급은 1951년 노동절 행진에서 보였다. 우측에 보이는 견본과 같이 초기 철모들은 전방에 전사화 (적-백-녹 원 안의 붉은 별)를 지닌 채 생산되었지만, 이런 식의 휘장이 전투 시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사화를 지닌 철모들은 의전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대신에 전사화가 없는 민무늬 철모들을 병력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M1950 철모의 희귀한 파생형 (1000량만 생산되었다)은 경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군악대들에게 지급됐다. 해당 생산본은 오늘날 남아있는 견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희귀한 철모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다른 파생형으로 개량형 내피를 지닌 은색 철모는 소방국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 철모들 또한 외피 측면에 통풍구를 지니고 있었다. M1950 철모는 1970년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군과 경찰, 노동자 의용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제복 조직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냉전 동안 수백만량이 생산되었으며, 1960년대까지 줄곧 제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M1950 철모의 삼패드형 내피와 간단한 가죽 턱 끈의 불편함이 대두되고 1960년대 말부터 구식임이 판명되자, 현대화 계획이 실행되었다. 외피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 (개발자들은 소련의 신형 Ssh66가 개량된 외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철모를 도색하는 대신에, 외피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었고 이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너무 반짝거린다는 것이었다 (철모용 망사나 방탄피와 함께 사용하라는 의미였지만 병사들에게 그러한 부속품들은 매우 드물었다). 반면 내피는 크게 개량되어, 기존의 간단한 세 개의 패드는 고리와 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 "Y형" 턱 끈과 함께 복합적인 4개 패드와 내피로 대체되었다. M1970 철모는 꽤 진보했지만 1970년대엔 일부 군대들이 이미 합성 방탄모들을 개발하고 있었기에, 실상은 너무 늦은 것이었다.

소련식 철모의 최종 개량품은 1980년대 말에 만들어져, 외피의 플라스틱 코팅을 제거하고 더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무광 마감재가 응용되었다. 더불어 외피 자체도 더 뛰어난 내구성을 갖춰 생산되었다. M1970/90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의 내피는 변화 없이 그대로 나왔다. 이것들과 별개로 M1970 철모의 현대화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들이 있었다 ("1호 시험품" 철모는 독일제 슈베르트 내피를 부착했고 "2호 시험품" 철모는 소방국 내피를 부착했다). 또한 여러 합성재 방탄모들은 수입했다 (대부분 특수전 부대들을 위한 것이었다) -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제 오를리트와 라빈텍스 방탄모들이었다.

현재까지도 헝가리 방위군의 제식 방탄모는 여전히 M1970/90 철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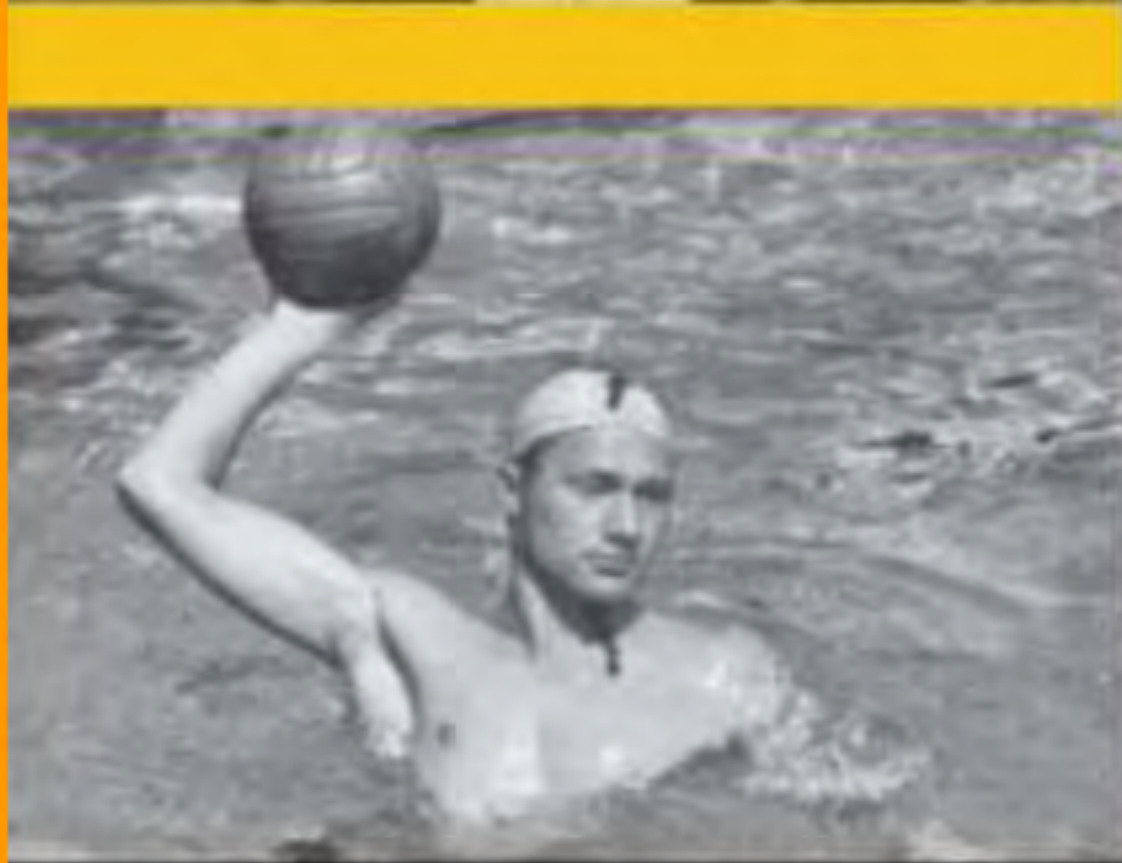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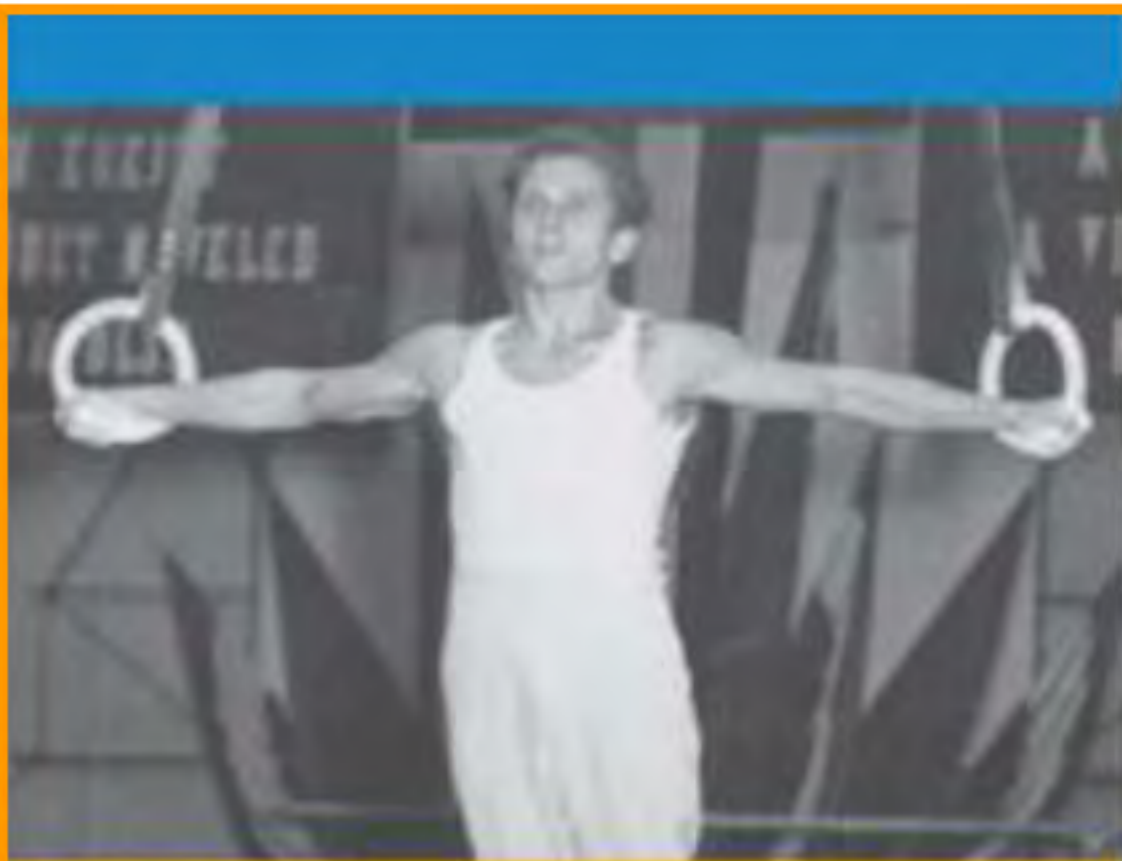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CZINK COLLECTION WEIDEMAN PHOTO



HADTÖRTÉNETI MÚZEUM
1014 BUDAPEST, TÓTH ÁRPÁD SÉTÁNY 40.



DOBOGÓSOK MUNDÉRBAN

ÉREMSZERZŐ MAGYAR KATONÁK
AZ ÚJKORI OLIMPIAI JÁTÉKOKON
CÍMŰ KIÁLLÍTÁS

A KIÁLLÍTÁS MEGTEKINTHETŐ

**ÁPRILIS 24-TŐL
SZEPTEMBER 30-IG**



HADTÖRTÉNETI
INTEZET ÉS
MÚZEUM



PORT.hu
magyar tv színház